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군산시,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위탁 협약... 급속충전기 10기 설치

군산시가 전기차 선도도시 실현을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재)자동차융합기술원과 위탁 협약을 맺고 상반기에 군산시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충전 중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있는 공영주차장 5곳을 선정하고 50kW와 100kW 급속충전기 10기를 설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군산시는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전기

차 선도도시 실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환경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조사업과 별도로 순수 군산시 시비 4억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0기 설치해 충전인프라 구축 확충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DC콤보, AC3상, 차데모 타입의 충전 커넥터 3종이 제공되어 국내외의 모든 전기차종의 충전이 가능하며, 100kW 급속

충전기의 경우 완충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여 효율적인 사용이 기대된다. 또한, 하반기에는 시비 6억원을 추가로 투입 전기차 급속충전기 15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점차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 및 전기차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국비 지원없이 전액 군산시 예산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는 사례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만큼 충전기 설치 장소 선정부터 운영 사업자 선정, 사후관리까지 군산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 되었다"며 "군산시가 전기차 선도도시로 거듭나도록 전후방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군산은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명실상부 전기차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산시민 및 관광객이 전기를 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충전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및 각종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청 조정팀이 '제14회 화천 평화배 전국조정경기대회' 여대 및 일반부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12연패를 달성했다.

군산시청 조정팀, 화천 평화배 '12연패'

여대 · 일반부 종합우승 쾌거

군산시청 조정팀이 '제14회 화천 평화배 전국조정경기대회' 여대 및 일반부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12연패를 달성했다.

6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군산시청팀은 쿼드라플(김영래, 피선미, 정혜정, 채세현) 1위, 무타페어(김영래, 피선미) 2위, 더블스킬(채세현, 김소영) 2위, 싱글스킬(정혜정) 2위를 기록하며 여대 및 일반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화천 평화배 전국조정경기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모든 대회가 취소·연기된 가운데 개최된 첫

조정 대회다. 군산시청 조정팀은 군산시 엘리트 전용 훈련시설에서 런닝과 웨이트 등 체력 훈련으로 대회의 준비를 위해 체력다련을 꾸준히 해왔으며 대회 개최 50일 전부터 화천에 자리 잡고 전지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2009년 3회 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군산시청 조정팀의 12연패를 이끈 유은경 감독은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여건 속에 개최된 올해 첫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올해 경기를 뛰지 못해 선수들이 실전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꾸준한 자기관리와 철저한 훈련으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가 전기차 선도도시 실현을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시 "대전 확진자에 1억6000만원 구상권"

역학조사 비협조, 피해 막대

익산시가 코로나19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지역에 큰 피해를 발생시킨 대전지역 74명 확진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6일 대전 74명 확진자가 역학조사에서 동선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정황이 확인돼 방역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시는 변호사 법률 자문과 함께 구상권 청구를 위한 피해액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 청구금액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제외하고 114명에 대한 검사비 등 1억6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1일 익산 4번째 확진자는 보건소에 대전방문 사실을 얘기하며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대전 74명 확진자가 이를 언급하지 않아 밀집 접촉자로 구분되지 않았고 검사대상이 아니라는 말에 25일까지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이는 대전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당시 이동 경로가 확인돼 4

번째 확진자에 대한 검체 검사와 자가 격리가 즉각 이뤄졌더라면 접촉자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크다.

이에 인해 시는 확진자 동선에 따른 접촉자 114명에 대한 검사비 등 예산 부담은 물론 신고자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미지 실추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적용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익산=정왕원 기자

군산시 · 켈코에너지솔루션 '에너지효율화' 협약

도로 가로등 LED 교체 등

군산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도로 가로등 교체사업 협약을 가지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켈코에너지솔루션(주)(사장 배성환)과 6일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군산시의 주요 도로의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분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도로조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례다.

군산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켈코에너지솔루션(주)이 약 25억원을 선 투자하고, 제조사와 시공사가 LED가로등 등 약 4,500여 등을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 사업으로 평균조도는 12룩스에서 22룩스로 2배 정도 밝아졌으며, 10년

간 1만6100CO2의 상쇄배출권 취득과 함께 배출권 판매를 통해 약 304,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협약에서 켈코에너지솔루션(주)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자사 수익 중 50%를 군산시에 무상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이로써 10년간 군산시는 2억2,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켈코에너지솔루션(주)은 1억2,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 사업을 통해 군산시는 주요 도로를 LED가로등으로 밝혀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효과와 함께 에너지 절감 사업도 진행하면서, 추가로 세입도 발생하는 일석산조의 효과를 얻게 된다.

켈코에너지솔루션(주) 측은 "도로조명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신청은 전국 최초로 진행됨에 따라 충분한 검토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계획이며, 이번 군산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지자체와의 에너지 절감 사업에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상의 "국립감염병연구소 익산유치"

도내 상의 공동 전복대에 건의

익산상공회의소(회장 양희준)에서는 전북도내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국가단위 감염병연구를 수행할 국립감염병연구소 익산유치를 바라는 건의를 전북대학교 총장에게 제출했다.

코로나 19 등 감염병이 전 세계의 주

요 현안이 되고 있는 시국에 정부에서 국가 바이러스 및 감염병 연구소 설립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중인 상황에서 전북도와 익산시에서는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익산시에는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원광대 인수공통감염병연구소

등 인프라와 연구인력이 준비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국가단위 감염병 연구를 수행할 최적지로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동물실험이 가능한 생물안전 차폐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정부과제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원광대 인수공통 감염병 연구센터가 구축되어 있다.

/익산=정왕원 기자

지역 소식통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 군산시, 법안마련 등 건의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조성되는 RE100산단(그린산단) 특화단지 조성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6일 국회를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와 RE100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특화단지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강임준 시장은 국회를 방문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김윤덕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안이원영 의원을 면담했다. 면담에서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로 지정되고, 세계 최대규모(3GW)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중인 새만금 산단이 RE100관련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최적지임을 설명하고 국가 예산확보와 RE100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정부에서 내년부턴 그린산단(RE100 등)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따른 RE100 전용선로와 변전소 용량 증설 등 국비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다이로움' 정책브랜드 활용

정현을 시장이 시민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화폐 '익산 다이로움'에서 '다이로움'을 익산의 정책브랜드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정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지역화폐 '익산 다이로움'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훌륭한 매개체로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다이로움은 익산을 상징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이미지로 자리잡아 익산의 정책을 홍보하는 브랜드로 활용하게 최적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익산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버스정류장에는 다이로움 정류장, 익산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로컬푸드에는 다이로움 로컬푸드 직매장과 같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제도와 사업에 다이로움'을 연계해 익산의 정책브랜드로 적극 활용하라"고 덧붙였다.

/익산=정왕원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